

[1~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 양상’의 변화

이 글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한 독서 양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독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독자는 이제 주어진 자료를 읽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의 자료를 직접 생성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다각적인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얻으며 지식을 확장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공지능 자료 생성의 한계와 문제점:

인공지능은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생성합니다.

문제점 1 (편견): 학습 데이터에 인종, 성별,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거짓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2 (왜곡): 학습 데이터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의 선호에 맞춰 일부 정보만 보여주거나 해석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3 (맥락 훼손): 원본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될 수 있으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자의 역할과 책임: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독자는 생성된 자료에 ④편견이 담긴 표현은 없는지, ⑤출처는 명확한지, ⑥한쪽으로 치우친 자료만 생성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검색, 도서관 방문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내용을 비교하고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답: ②

해설 ②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는 본문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본문에서는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독자가 예상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식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춰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

③ 독자는 자신이 읽고 싶은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직접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독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④ 독자는 AI가 만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다른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내용 비교를 할 수도 있다.")

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정답: ⑤

해설: ⑤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 단락에서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가 완벽하더라도 생성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는 인공지능이 "독자의 요구난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지, 독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전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학습은 독자의 요구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③ [A]에서는 학습한 정보에 포함된 편견이 생성된 자료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편견이 있는 정보가 일괄적으로 제거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A]에서는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라고 명시하여, 원본의 의도나 맥락이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 정답: ③

해설: ③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㉔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학생은 자료가 '동양인의 사례만' 나오는 것을 보고,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사례를 찾아보며 정보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제시된 '㉔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비판적 읽기 활동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오답 파하기]

㉑: 편견이 있는 표현 점검

㉒: 출처의 명확성 점검

㉓: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인지 점검

<보기>의 학생 활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체독'이 궁금해 AI로 자료 생성 → '근본적인 의미'가 어려워 '추가 자료' 생성

'동양인'의 사례만 나오는 것을 보고, 방향을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사례 생성

AI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책'과 비교 예정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근본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지, 출처(㉒)를 점검한 것이 아닙니다.

② '다양한 사례' 자료를 생성한 것은 '동양인'의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지, 표현의 편견(㉑)을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④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것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출처의 명확성(㉒)을 점검한 것에 해당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㉓)를 점검한 것이 아닙니다.

⑤ 다른 책과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㉑, ㉒, ㉓ 모두와 관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검토 활동입니다. 하지만 '편견 있는 표현'(㉑) 하나만 점검하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9] 주제 통합 지문 “영화를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SF 장르의 특징”

(가) 지문 해설: 영화를 통한 사회의 총체적 이해

이 글은 크라카우어와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두 학자의 영화 분석 이론을 소개합니다.

크라카우어: 영화는 대중의 취향뿐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숨겨진 이념’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1920년대 독일 영화의 반복적인 이미지(밀실, 광인, 독재자 등)를 분석하여, 당시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 심리와 정치적 욕망을 읽어냈습니다.

프레드릭 제임슨: 크라카우어의 관점을 확장하여, 영화를 통해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역사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현재를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입니다. SF 영화에서 미래를 다루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 지문 해설: SF 장르의 핵심 요소 - 노뮴과 인지적 낮셈

이 글은 SF 연구가 다르코 수빈의 이론을 중심으로 SF 장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SF의 정의: 과학적 지식에 기반(㉡두다)하지만, 사실정보보다는 ‘개연성’(그럴듯함)이 더 중요합니다.

노뮴(Novum): ‘새로움’을 의미하며, 당대의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는 SF의 핵심 설정입니다.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현실 세계와 허구 세계의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지적 낮셈: ‘노뮴’으로 인해 발생하는 SF의 핵심 체험입니다. 현실과 닮았으면서도 다른 SF 속 세계를 보며,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현실과 거리(㉢두다)를 두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됩니다.

유토피아: 수빈은 SF가 유토피아 이야기의 계보를 잇는다고 보며, 현실의 위기 속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정답 ②

해설 (가)에서 크라카우어는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같은 이미지를 통해, 당시 독일 사회에 퍼져 있던 현실 도피 심리나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욕망 등 (당시 기준으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선택지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 따르면 영화 속 이념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모티프 뒤에 '감추어진 이면'에 존재합니다.

③ (나)에 따르면 SF의 '다름'은 현실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노름'을 통해 그 차이를 드러내고 '인지적 낯센'을 유발하여 오히려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④ (나)에서 수빈은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 즉 '노름'을 SF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지,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⑤ (나)에 따르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SF 세계가 현실과 '닮았다'는 점이 아니라,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5. 정답 ②

해설 '역사화'의 핵심은 "현재를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여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SF에 적용하면, SF가 그리는 '미래'를 마치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그 SF가 만들어진 시점인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택지 ②는 이 추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SF의 특징일 뿐, '역사화'의 핵심인 '완료된 과거처럼 보는 관점'이 빠져있습니다.

③ '통시적(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찰이 아니라, 특정 시점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공시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④ 미래 사건을 현재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과거처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⑤ 미래 시점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분석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6. 정답 ⑤

〈보기〉의 입장 (비판적 입장): SF 유토피아는 현실 도피일 뿐이며, 결국 붕괴하는 모습을 통해 유토피아의 실현 불가능성과 현실 문제의 해답은 현실 너머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의적/비판적 관점)

[A]의 입장 (수빈): SF의 유토피아 탐색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희망적/긍정적 관점)

따라서 우리는 〈보기〉의 회의적 관점이 [A]의 희망적 관점을 어떻게 비판하고 평가할지

를 찾아야 합니다.

해설 ⑤는 "<보기>가 지적하는 유토피아의 한계(실현 불가능성)를 고려할 때,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보기>의 핵심 주장('유토피아는 불가능하고 해답은 현실 너머에 없다')을 정확히 근거로 삼아, [A]의 핵심 주장('SF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자')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이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기>의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결론이므로, 가장 적절한 평가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수빈이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평가하지만, [A]에서 수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A]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므로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수빈의 생각이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원적 모순'은 <보기>의 입장이며, 수빈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므로, 이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③ 수빈의 생각이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성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항구성(영원히 계속됨)'을 간과했다는 것은 <보기>의 핵심 비판(실현 불가능하다)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수빈은 그 갈망이 이어져 온 것을 인정하고 SF가 계승했다고 봅니다.

④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는 부분은 <보기>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는 SF 유토피아가 욕망을 '해소'해주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그것이 결국 '붕괴'하고 '실패'한다는 점을 통해 교훈을 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입장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한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7. 정답 ⑤

해설 ⑤는 '인지적 낮춤'을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반되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감각적 충격'이 원인 또는 수단이 되어 '이성적 성찰'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요소가 단순히 함께 일어나는(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충격 → 성찰'이라는 인과적/과정적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지 ⑤의 설명은 미묘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노BUM은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노BUM은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이라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노BUM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인지적 낮숨은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낮설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정답 ①

해설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행위(①)가, (가)의 크라카우어 이론에 따라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지상을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영화의 배경을 객관적으로 묘사(description)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그 묘사된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interpretation)하는 심층적인 분석 단계입니다.

즉, <보기>의 비평가는 지상의 모습을 '묘사'했을 뿐, 그 '잔해'라는 이미지가 우리 사회의 어떤 숨겨진 이면을 의미하는지까지 나아가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지는 단순 묘사를 심층 분석의 결과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답 피하기]

② <보기>의 '압도적인 느낌'은 (나)에서 SF의 장르적 특징으로 설명한 '경이로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감정이므로 적절합니다.

③ <보기>에서 과학적 오류보다 영화의 전개를 더 중시하는 태도는, (나)에서 SF는 '과학적 진위'보다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적절합니다.

④ <보기>에서 영화의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고 한 것은, (가)의 제임슨이 말한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총체적으로 통찰'하려는 시도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영화의 알레고리를 통해 사회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은 총체적 이해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연결입니다.

⑤ <보기>에서 '갑작스러운 화해'라는 결말을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영향'으로 본 것

은, (가)에서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9. 정답 ①

㉠ "기반을 ㉡둔다고 해서": 어떤 것을 근거나 기초로 삼다.

㉢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일정한 간격이나 상태를 유지하거나 만든다.

선택지 분석

① ㉠: "실화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 '근거로 삼다'는 의미로, 지문의 ㉠과 일치합니다.

① ㉢: "그와 두었던 거리는 멀어지기만 했다." → '사이에 간격을 만들다/유지하다'는 의미로, 지문의 ㉢와 일치합니다.

② ㉠: "미련을 두지 마라." →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는 의미입니다.

③ ㉠: "뜻을 어디에 두느냐" → '목표나 목적을 가지다'는 의미입니다.

④ ㉢: "거리를 두게 되었다." → ㉢의 의미와 일치하지만, 짝이 되는 ㉠ "누이를 뒤에 두고"가 '남겨두다'는 의미이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⑤ ㉠: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 '중요하게 여기다'는 의미로 ㉠와 유사하지만, 짝이 되는 ㉢ "앞에 두고"가 '(시간/거리가) 남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와 ㉢의 의미가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입니다.

[10~13] “공공 저널리즘의 등장 배경과 방법론 및 비판과 반론”

이 글은 '공공 저널리즘'의 등장 배경, 핵심 철학, 방법론,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 공공 저널리즘의 등장 배경

과거의 저널리즘(언론)은 주로 권력과 관련된 정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거리가 멀었고, 결국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중의 실제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습니다.

2문단: 대중(대중)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리프만 (비판적 관점): "대중은 감정적이고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은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듀이 (긍정적 관점): "대중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언론은 대중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직접 참여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3문단: 공공 저널리즘의 구체적인 방법 (로젠의 이론)

공공 저널리즘은 대중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문제 해결의 '잠재적 참여자'로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나 사회 과학적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꼭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공론장을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문단: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

비판: "언론이 대중과 너무 깊이 엮이면 객관성을 잃고 주관적이 될 수 있다."

재반박 (마이어의 주장):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 과학처럼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언론이 주관에 치우치는 문제를 막고 객관성을 지킬 수 있다."

10. 정답 ⑤

본문에서는 리프만이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언급되지만, 언론인의 전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번 질문에 대한 답은 뒷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듀이는 공중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는가?: 2문단에서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② 공공 저널리즘이 중심 의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1문단에서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③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가 불러온 결과는 무엇인가?: 1문단에서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는 '공중의 무관심'을 불러왔다고 설명합니다.

④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4문단에서 마이어의 주장을 통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대응 논리를 제시합니다.

11. 정답 ④.

문제의 '㉠'이 지문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제의 선택지들을 고려할 때 ㉠은

듀이나 로젠이 강조한 ‘공론장(public sphere)’ 혹은 ‘공론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듀이는 2문단에서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로젠은 3문단에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여 공공 문제를 원활히 토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공론장은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12. 정답 ④.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국제 행사 유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로젠과 마이어가 ‘모두’ 공공 저널리즘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로젠의 관점: 본문 3문단에 따르면, 로젠은 공공 저널리즘이 논의된 해결 방안을 보도해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례 2]처럼 결과적으로 행사 유치에는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설문 조사, 전문가 및 지역민 인터뷰, 회의 등 공론의 장을 형성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로젠은 그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마이어의 관점: 마이어는 ‘방법론적 객관성’을 중시했습니다. [사례 2]는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므로 마이어의 관점에서도 공공 저널리즘의 방법론을 일부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공공 저널리즘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④번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3. 정답 ③

㉔에 사용된 ‘분별(分別)할’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어 판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 리프만은 공중이 고정 관념이라는 틀과 실재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바꾸어 쓸 단어로 제시된 ‘깨달을’은 ‘잊었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별하다’가 적극적인 판단과 구별의 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깨달다’는 인식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맥상의 미묘한 의미 차이가 가장 큼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문맥상 의미가 거의 동일하여 바꿔 쓰기에 적절합니다.

- ㉑ 꺾리되코 → 동떨어지고 (의미 유사)
- ㉒ 기꺾하엿다 → 멀리하엿다 (의미 유사)
- ㉓ 적합한 → 알맞은 (의미 유사)
- ㉔ 달성되논 → 이루어지는 (의미 유사)

[14~17] “소리 저장 방식의 변천과 지각 부호화를 통한 압축 원리”

이 글은 소리 저장 방식의 변천 과정과 현대 디지털 오디오 기술의 핵심인 ‘지각 부호화(perceptual audio coding)’를 통한 압축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 초기 아날로그 녹음 방식

초기 녹음기인 축음기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소리의 진동(파형)을 바늘을 통해 원판에 물리적인 홈(groove)으로 새겨 저장하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2문단: 현대 디지털 녹음 방식과 압축의 필요성

현대의 소리 저장은 소리를 디지털 신호(이진수)로 변환하여 파일로 저장합니다.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일반적으로 각 소리(샘플)에 균일한 개수(예: 16비트)의 비트를 할당합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양이 매우 커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네트워크 전송에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디오 신호 압축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문단: 지각 부호화의 기본 개념

오디오 압축 기술로 지각 부호화를 소개합니다.

이 기술은 사람이 소리를 인지하는 ‘청각 특성’을 이용해,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 정보를 제거하여 데이터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주요한 청각 특성으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 효과를 언급합니다.

최소가청강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이며, 이 값은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

4문단: 청각 특성 ② - 차폐 효과와 임계 대역

차폐: 큰 소리(차폐음) 때문에 주변의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차폐는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임계대역: 하나의 차폐음이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저음에서는 좁고, 고음에서는 넓어집니다.

차폐 문턱값: 차폐 효과로 인해 특정 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리 크기입니다. 즉, 이 값보다 작은 소리는 차폐되어 들리지 않습니다.

5문단: 지각 부호화의 구체적인 과정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에 따라 여러 임계대역으로 나눕니다.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해 차폐 문턱값을 구합니다.

실제 소리의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하여 음질 손실을 줄입니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는 사람이 어차피 듣지 못하므로 데이터에서 제거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음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합니다.

14. 정답 ③

해설 ③번 선택지는 2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문단에서 설명하는 '소리 크기'는 압축 전 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특징일 뿐, 압축 과정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압축의 변수는 3문단부터 설명되는 '청각 특성(최소가청강도, 차폐 효과)'입니다. 따라서 두 문단의 내용을 압축의 변수라는 관계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초기 녹음기)과 2문단(최근 매체)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기술 변화를 보여주므로,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는 것은 적절합니다.

②: 2문단에서 파일 크기가 크다는 '난점'을 언급하고, 이로 인해 오디오 신호 압축이라는 '필요성'이 생겼음을 이해하는 것은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올바른 읽기 방법입니다.

④: 3문단에서 최소가청강도를 설명하며 소리의 감지(들을 수 있는지 여부)와 주파수의 관련성을 언급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며 읽는 것은 적절합니다.

⑤: 4문단에서 차폐, 임계대역 등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5문단에서 이 요소들을 활용한 압축 '과정'을 설명하므로, 순차적인 관계로 이해하며 읽는 것은 적절합니다.

15. 정답 ③

해설 2문단에서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압축하기 전의 원본 디지털 오디오 파일은 소리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각 샘플 데이터에 동일한 비트 수(예: 16비트)를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③번 설명은 본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답 피하기]

①: 초기 녹음기(축음기)는 1문단에 따르면 소리의 진동을 홈으로 파서 저장하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는 것은 현대의 방식입니다.

②: 축음기 판에 새겨진 홈은 '저장된 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는 디지털 방식에 해당하므로, 이 둘을 비교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④: 2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데이터양이 많아(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므로, 비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네트워크 전송에 불리합니다.

⑤: 지각 부호화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정보를 제거하여 압축하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6. 정답 ⑤

해설 4문단에서 '임계대역'은 차폐음이 주변 주파수의 소리를 차폐하는(가리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소리의 주파수가 차폐음의 임계대역 폭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소리는 차폐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차폐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⑤번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추론한 설명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최소가청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강도)이며, 주파수의 최소값이 아닙니다.

②: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구간이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4문단에서 임계대역은 "저음에서 좁고 고음에서 넓다"고 했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④: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는 '차폐되는 소리'이고, 이 현상을 일으키는 큰 소리가 바로 '차폐음'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습니다.

17. 정답 ⑤

해설 5문단에 따르면, 압축 시 비트 할당량은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클수록 많아집니다. 이 차이값을 각 소리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text{소리 C의 차이} = (\text{소리 크기}) - (\text{차폐 문턱값}) = 63\text{dB} - 38\text{dB} = 25$$

$$\text{소리 D의 차이} = (\text{소리 크기}) - (\text{차폐 문턱값}) = 55\text{dB} - 6\text{dB} = 49$$

계산 결과, D의 차이값(49)이 C의 차이값(25)보다 큼니다. 따라서 지문의 원리에 따라 압축할 때 D의 소리 크기에 C보다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⑤번은 이 내용을 정

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소리 A는 소리 크기(30dB)가 최소가청강도(38dB)보다 작으므로 차폐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들을 수 없습니다.

②: 소리 D는 소리 크기(55dB)가 차폐 문턱값(6dB)보다 훨씬 크므로 차폐가 일어나긴 하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③: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지만, 압축 과정에서 A는 최소가청강도 미만이라 제거될 가능성이 크고, B는 $(30\text{dB} - 20\text{dB} = 10)$ 만큼의 정보를 가집니다. 따라서 할당되는 비트가 같을 수 없습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임계대역의 폭은 주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음에서 넓다). A(150Hz, 저음)와 C(1500Hz, 고음)는 차폐 문턱값이 같더라도 주파수가 다르므로 임계대역의 폭은 다릅니다.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이 더 넓을 것입니다.

[18~21번]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이화전」

이 작품은 새로운 부사로 부임한 '이화'가 전임 부사들을 죽게 한 초월적 존재(여우 요괴)를 퇴치하는 과정을 그린 영웅 소설이자 전기(傳奇)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화는 조력자인 혼령 '여백'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요괴를 처단하여 고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18. 내용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⑤ 이화는 나무 위에서 백발노옹과 노파가 소리를 지르자, 정신을 차리고 군사들에게 "저 요괴를 잡으라"고 고함치며 나무를 베도록 재촉했습니다. 이화가 직접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이화가 직접 나무를 베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이화는 부임하기 전, 부모의 만류에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여산으로 갔습니다.

② 이화는 나무 베기를 거부하는 관리와 백성들에게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냐"라고 꾸짖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③ 이화가 호령하는 소리가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자, 군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④ 군사들은 나무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실색 창황"하여 이화에게 나무 베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이화는 십여 년간 벼슬을 못해 "분올해"하던 차에, 위험한 여산 부사로 ㉠제수되자 "대희하여(크게 기뻐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어 울분을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을의 당면 문제인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각 면에 하령하여 나무를 베는 준비를 하고, 마침내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오답 피하기]

② 상이 ㉣을 행한 것은 '인심 수습'보다는 여산의 '괴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화가 ㉤을 행한 것은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요괴를 퇴치하기 위함이며, 오히려 백성들은 이 명령에 반대했습니다.

③ ㉠은 이화 부모의 걱정의 원인이 되지만, 이화가 ㉡을 행한 것은 자신의 권한으로 내린 명령이지 상의 권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아닙니다.

④ 군사들은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명령에 따랐습니다.

⑤ 이화는 백성의 요청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을 행했으며, 오히려 백성들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이지 관리들에 대한 반감 표출이 아닙니다.

20. [A]와 [B]의 비교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A]에서 백성들은 나무를 베면 자신들과 이화(성주)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무를 베는 행위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한 것입니다. [B]에서 백성들은 요괴가 퇴치된 후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라고 말하며, 이화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된 긍정적인 상황(태평)이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백성들의 믿음(나무가 신령하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에서는 이화에 대한 믿음이 사실로 증명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③ [A]는 이화의 행동 변화(나무를 베지 말 것)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B]는 이화의 업적을 칭송할 뿐, 그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④ [B]에서는 이화의 업적을 예찬하지만, [A]에서는 이화를 만류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⑤ [A]에서는 이화의 지위('성주')를 언급하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제안하지만, [B]에서는 그의 공을 칭송할 뿐 무언가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⑤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조력자로부터 위기 해결 능력을 전수받지 못하는 특이성을 보입니다. 여백의 조언을 따랐지만 결국 '수여우' 한 마리만 죽이고 암여우는 놓친 것은, 조력이 완전하지 않았거나 주인공의 임무 수행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주인공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암여우의 존재)를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이화가 "본국의 위태하"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모습은 영웅 소설 주인공의 면모에 해당합니다.

② 여백이 자신을 칼로 베려는 이화의 위협에 못 이겨 조언을 해주는 모습은 〈보기〉에서 설명한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도움을 주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력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③ 인간인 이화가 초현실적 존재인 혼령 여백과 대화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장면은 전기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④ 이화는 여백에게 요괴를 잡는 '방법'만 들었을 뿐, 요괴를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22~26번] 문학 복합: (가) 박목월, 「경사」 / (나) 이수익, 「달빛 채질」 / (다) 채제공, 「용연사기」

(가)는 바다로 기운 길을 걸으며 느끼는 해방감과 편안함,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는 화자의 관조적 태도를 노래한 시입니다. (나)는 달빛과 교감했던 조상의 기질을 물려받아 자신 또한 밤과 달에 본능적으로 이끌린다는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다)는 집이 작다고 여기는 친구에게, 사물의 크고 작음은 마음에 달린 것이며 마음을 키우면 작은 집도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고전 수필입니다.

22. (가)~(다)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가)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과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경사감을 통해 느끼는 평온함과 순리)를 강조합니다. (나)는 '달빛'이라는 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화자의 정체성과 조상과의 유대감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합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명사 종결은 의지보다는 관조적, 감각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② (나)에서 '달'이 의인화된 대상처럼 그려지지만 그 의미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③ (다)는 관점을 대비하지만, 세태에 대한 냉소보다는 친구에 대한 따뜻한 조언의 태도를 보입니다.

⑤ (가)에 감탄사 '오오'가 한 번 나오지만, 정서의 '변화'를 부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에는 감탄사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3. (나)의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6연에서 화자는 '그것'(달빛 체질)이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모체의 태반'에 비유합니다. 이는 달과의 거리가 아쉬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자신과 근원적으로 연결된 숙명적 관계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쉬움이 해소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2연(달빛 아래서 놀고 글 읽던 조상)과 4연(달만 보면 가슴이 멎해지는 화자)은 1연에서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한 이유와 화자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② 4연에서 화자의 '몸 안에' 흐르는 '피'는 3연에서 '내 조상'이 '일생' 동안 원했던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바랐던 속성과 연결됩니다.

④ 2, 3연에서 조상이 달에 대해 느낀 '포근한 그리움', '크나큰 기쁨'이라는 긍정적 정서는 6연에서 화자가 '그것'에 이끌리는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⑤ 6연의 '바닷물'을 끄는 달의 '인력'이라는 자연 현상은,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이끌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비유합니다.

24. <보기>를 참고한 (가), (나)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⑤ (가)의 '빛나는' '자갈'은 저녁 햇살 속 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시각적 이미지이며, (나)의 '밝은' '달빛'은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 모두 '희망 추구'라는 내적 지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는 평온과 수용, (나)는 근원적 이끌림이 주된 정서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젊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무거움'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젖은 구두'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과거를 힘들었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② '시야가 열리는' '바다'를 '잔잔한' 모습과 연결하여,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③ '태양 체질', '달빛 체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각각 '뜨겁다', '아늑하고 조용하다'는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형상화에 해당합니다.

④ 일반적으로 어둠(밤, 저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가)에서는 '해가 저물 때'를 '설레는' 것으로, (나)에서는 '밤'을 '크나큰 기쁨'과 연결한 것은 화자 개인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25. (다)의 구절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㉔는 글쓴이가 과거에 친구 '사양'으로부터 그의 집이 작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사양'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그에게 조언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식의 변화는 글쓴이의 조언 이후에 기대되는 것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㉔("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는 설의적 표현(물음의 방식)을 통해 사물의 외적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일반적 인식을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② ㉔는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작게 여길 수 있다'는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④ ㉔("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는 명령형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면에 집중할 것을 친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⑤ ㉔는 '집이 몸을 수용하고, 몸이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이 천지를 수용한다'는 연쇄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가치를 '사양'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26. (가)와 (다)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 속에 빛나는 길을 보며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고 평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상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핵심 주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서 '사양하지 않'는 '집'은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지만, 이를 통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확대 해석입니다.

② (가)의 '신비스러운 경사감'은 경이로움과 평온함을 나타내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③ (가)와 (다) 모두 자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만,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⑤ (가)의 '기우는 세계'는 긍정적이고 신비스럽게 묘사되므로 '불완전함'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는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보다 마음가짐을 통해 가치를 재창조하라고 말합니다.

[27~30번] 고전 시가 복합: (가) 작자 미상, 「화전가」 / (나) 작자 미상, 사설시

조 / (다) 채현, 「석문가」

(가)는 규방의 여성들이 봄날 화전놀이를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억눌렀던 정서를 해소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입니다. (나)는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돌아와 소박한 삶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표현한 사설시조입니다. (다)는 자연과 하나 되어 유유자적하는 삶의 흥취를 노래한 평시조입니다.

27. (가)~(다)의 공통점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세 작품 모두 현재의 즐거운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이나 소망을 드러냅니다. (가)의 화자는 놀이를 마치며 "시화세풍 하거들랑... 고향 산천 찾아오마"라고 말하며 미래의 재회를 기약합니다. (나)의 화자는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그 좋은가 하노라"라며 현재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의 화자는 백구에게 "백년을 함께 놀자"고 청하며 현재의 즐거움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답 피하기]:

① 세 작품 모두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노래할 뿐, 관념적 사유를 통한 내면 수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대상의 유한성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현재의 즐거움과 그 지속에 대한 소망이 주된 정서입니다.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보다는 드러난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⑤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은 (가)에 해당하지만, 세 작품 모두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8. (정답 ①)

정답 해설

㉠의 구절: "차레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①번 설명: 차례차례 달려가니 호화로운 장식을 한 모습 찬란하게 보기 좋다는 말로 화전을 가기 위해 치장한 부녀자들의 외양을 예찬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9. 시어의 기능 비교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 '피꼬리'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상징물로, 화자들이 기다리던 화전놀이의 시기가 도

래했음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㉞ '백구'는 화자가 "백년을 함께 놀자"고 말을 건네는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며 교감하는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오답 피하기]:

① ㉜는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③ ㉜는 계절의 도래를 알려주는 계기이지만, ㉞가 특정 계절을 연상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㉜는 주변 존재들과 함께 즐기는 대상이 맞지만, ㉞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는 대상이지 소통을 막는 원인이 아닙니다.

⑤ ㉜는 태평성대의 한 모습일 뿐 근거는 아니며, ㉞는 함께 어울리는 친근한 대상이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30. <보기>를 참고한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가)에서 '정관'(술, 관)을 '걸어 놓'는 행위는 화전놀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위해 일상의 규범이나 격식을 잠시 벗어던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연을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일시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반면, (나)에서 '고기'를 낚고 '약'을 캐는 것은 은거 후의 '일상적 생활'이므로, 두 행위를 동일하게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피하기]:

② (가)에서 '금오산'을 보며 '충신'을 떠올리고, (나)에서 은거 중에도 '성경현전'을 읽는 모습은 모두 사대부로서 내면화된 유교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③ (가)에서 경치를 '무릉원'에 비유하고, (나)에서 자연 속 '즐거움'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의 공통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김"을 강조하는 데서 여성들의 공동체적 흥취를, (나)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데서 남성의 개인적이고 자족적인 흥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⑤ (가)에서 "오늘이야 쾌한지"라는 표현은 억압된 일상에서 벗어난 '한시적' 만족감을, (나)에서 '백년'을 함께 놀고자 하는 소망은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보여줍니다.

[31~34번] 현대 소설: 염상섭, 「두 출발」

이 작품은 전통적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역의 세도가였던 양덕영감 집안이 하인 김원석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순사에게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전통적 권위가 새로운 권력(공권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김원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서울로 떠날 것을 다짐합니다.

31. [A]의 서술상 특징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A] 부분은 청년들과 원석이가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루? 서울루 가서 하려우?"와 같은 직접 인용 표현과, 원석이가 자신의 계획과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라고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간접 인용 표현이 함께 사용되어 인물의 생각과 계획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인물의 말과 행동, 생각을 모두 서술하는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② [A]에서 서술자는 인물들의 대화를 전달할 뿐,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④ 대화가 오가지만, 청년들은 원석을 걱정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관찰자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전지적 서술자의 시점이며, 행동 묘사보다는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과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인물 관계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㉔(꼬깔 참봉)는 순사(㉑)가 아버지(㉓)를 데려가려는 불안한 상황에서, "치전이 죽은 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감시다"라고 말하며 나섭니다. 이는 순사(㉑)와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㉓)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㉑(선달)는 순사(㉑)가 아니라 주인인 양덕영감(㉒)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③ ㉑(원석이 처)는 남편이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나섰다가 꼬깔 참봉(㉔)에게 호령을 당했을 뿐, 양덕영감(㉒)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④ ㉔(꼬깔 참봉)가 ㉒(양덕영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린 것은 맞지만, ㉑(순사)와 동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선택지에서는 '㉒와 동행'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만약 '㉑와 동행' 이었다면 정답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⑤ ㉠(순사)는 ㉡(꼬깔 참봉)의 제안("나하고 감시다")을 수용하지 않고, "당신도 감시다"라며 부자(㉢와 ㉣)를 둘 다 데려갔습니다.

33.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는 원석이가 꼬깔 참봉이 치전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소문이 벌써 집안에 퍼졌구나'하고 놀라는 내면의 독백입니다. 즉, '치전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미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오답 피하기]:

①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③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는 과거 수십 년의 내력을 언급하며, 양덕영감이 순사에게 끌려가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인지를 강조합니다.

④ ㉠("편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죠")는 양덕 댁에 장례 비용을 요구해봤자 거절당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⑤ ㉡("뻗뻗하기가 바지랑대 던데")는 과거에 기부금을 거절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양덕 댁의 완고하고 거만한 태도를 '바지랑대'라는 사물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근대적인 공권력 앞에서는 효력을 잃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상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사회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전'은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뜻인데, 이 사건 외의 다른 상황에서는 여전히 신분 질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예: 꼬깔 참봉이 원석의 처를 꾸짖는 모습). 따라서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꼬깔 참봉이 하인의 아내인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모습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적 지위와 권위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② 청년들이 양덕 댁을 "그까짓 놈"이라 칭하며 그들의 몰락을 암시하는 말("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을 하는 것은, 전통적 권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④ 원석이 하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며 서울행을 결심하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근대적 인물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⑤ 아버지인 양덕영감은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로만 대응하는 반면, 아들인 꼬깔 참봉은 '굵실거리며' '원네'라는 극존칭까지 쓰는 등 훨씬 더 민감하게 권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